

3면에 이어

공산주의를 없앤 구세주

그리고 또 이 사람이 81년도부터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린다!'고 그랬죠? 처음에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니가 모여 있던 사람의 삼분지 이가 다 일어서서 나갔던 것은 개똥같은 소리하지 말고, 대포 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가서는 '역곡에 조 대포가 나타났다!'고 떠들고 다녔는데, 조 대포라는 건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아, 지금까지 왜 뉘대 공산주의를 없애?' 하면서 막 비방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90년도에 공산주의 없애지니가 그때 나간 사람들이 다시 왔어, 안 왔어? 다시 왔죠? 이 사람이 공산주의를 없애는 것이 분명하다는 증거는 91년도에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세 늑한테 연금되어 갇혀 있다가 1991년 8월 23일에 풀려나오자 그날 우리제단 꼭대기에 쌍무지개가 섰던 거죠? 쌍무지개가 섰을 때에 우리 식구들이 먼저 발견했어요? 바깥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 저 건물 위가 쌍무지개가 섰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식구들이 나가서 전부 사진을 찍은 고로 오늘날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게 된 거죠?



공산주의를 없앤 주인공이 이 승리제단에 계신 고로 이 제단 꼭대기에 무지개가 섰던 것입니다.

고르바초프가 연금되었다가 석방되기 하루 전날, 이 사람이 단상에서 말하기를, '고르바초프가 곧 풀려날 것이다!' 그랬죠? 이 사람의 분신이 고르바초프가 갇혀 있는 곳에 가서 권총을 대고 고르바초프의 골통을 향해서 쏘려는 순간 탁 나타나

◀생미복부처님이 환갑 되는 1991년에 소사 역곡에 승리제단을 세워 사해만방에 알릴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성탄절을 겸한 헌당(獻堂)예배를 올린 지 불과 열흘 후에 이슬성신이 내리는 가운데 제단 상공에 쌍무지개가 떴다. 그날이 8월 23일인데 고르바초프가 군부 쿠데타에 의해 3일간 연금되었다가 풀려난 날이다. 고르바초프의 석방은 <공산주의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이루기 위해 부처님의 분신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구약성서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때 나타난 무지개는 하나님이 더 이상은 홍수로 생명체가 멸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무지개였다. 마찬가지로 제단 상공의 쌍무지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계를 이루겠다는 징표이다.

서 너희들, 이 고르바초프를 죽이면 너희들도 다 죽어!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이곳에서 나가!' 하나가 그냥 풍뎉기가 빠지라고 도망 나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세 명은 모두 도망가고 고르바초프는 해방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초창기에는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2001년 6월 24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용 기자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대”

지금의 본연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대이다. 하나님이 안되면 영영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 구렁텅이에 들어가느냐? 선택은 둘 중의 하나이다. 이긴자가 나오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아야 하는 운명 속에 살고 있었지만 이긴자가 나온 다음에 이긴자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어 영원무궁토록 사는 팔자가 되어버린다. 세상에서는 운명을 팔자라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긴자를 전지전능의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므로 이긴자가 이끌고 가는 대로 따라오는 자는 이긴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신진대상 up ^^

운동도 내 몸의 능력에 따라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마음 문을 열고 시작해 보자. 특히 추운 날씨에는 관절에 무리 없도록, 근육 강화에 도움 되는 요가로 서 오늘의 피로는 오늘 풀어 유연성과

부드러운 관절로 건강한 오늘을 만들어 보실까요?

동작 ① : 왼쪽 다리를 앞으로 접는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뻗어 발등을 바닥에 댄다. 양손은 바닥에 짚고 상체를 바로 세워 시선은 정면을 바라본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척추 기립근 강화 ^^

동작 ② : 1번 자세에서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끌어 올리고 고개를 들어 내쉬는 숨에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히고 하늘을 바라본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혈액순환 대사가기 up ^^

동작 ③ : 2번 자세에서 숨을 마시며 고개를 들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배꼽부터 천천히 바닥으로 내린다. 양팔을 머리 위로 뻗는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후굴력을 높여 림프 흐름 촉진 ^^

동작 ④ : 현 자세에서 오른쪽 무릎을 접어 귀 옆으로 올린다. 오른쪽에 발목을 걸어서 등 뒤에서 왼손을 잡는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동작 ①



동작 ②



동작 ③



동작 ④



격양유록 新해설
수정판 제61회

吉地歌 길지가

四三雙空近來(사삼쌍공근래)로다
一九六八當致(일구륙팔당치)하네
苦海衆生(고해중생)다오나라
救援枋舟(구원방주)누히뎌네
風浪波濤凶凶(풍랑파도흉흉)하나
山岳波濤(산악파도)두려마라
神幕別摩(신막별마)건곤
海印造化(해인조화)나타나
平沙三十里(평사삼십리)승승길지
牛性在野牛鳴聲(우성재야우명성)에
一尺八寸天人言(일척팔촌천인언)을
不知中動可憐(부지중동가련)구나
桃花流水武陵村(화류수무릉촌)이
南海朝鮮夜鬼發動作伴(남해조신야귀발동작반)하니
不知生路滅亡入(부지생로멸망입)을
桂村宮曉星照(계촌궁효성조)에
紫霞之中三位聖(자하중삼위성)을
聖山聖地平川間(성산성지평천간)에
甘露如雨心花發(감로如雨심화발)을
馬而啼啼不知(마이제제부지)
此岸鳥而叫不知(차안조이규규부지)
南之北(남지북지)
牛而鳴鳴不知(우이명명부지우양마양)

지상천국 계룡의 나라가 가까이 오도다. 정도령이 감로해인을 가지고 오셨느니라. 고해중생(苦海衆生) 다 오너라. 구원방주(救援枋舟) 높이 뎌네. 풍랑파도흉흉(風浪波濤凶凶)하나 산악파도(山岳波濤) 두려워 마라. 하나님의 장막은 별천지(別天地)니 해인의 조화가 나타나리라. 그 곳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십승(十勝) 길지(吉地)인 부평(富平) 소사(素砂)이니라.

뜰에서 소가 밭을 갈듯 정도령은 마음 밭을 갈아 인생을 추수하려고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신천촌(信天村)을 찾

궁궁을을전전을 알아야 영생이니라

지 않고 중동(中動) 즉 중입(中入)이 언제 인지도 모르니 가련하구나. 신선이 산다고 하는 도화유수무릉촌(桃花流水武陵村)이 남쪽 조선 한국인데 마귀들이 발동하여 짝을 지어 방해하니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구나. 하늘나라(계룡궁계룡궁=계수나무는 영생을 상징한다)의 주인공이며 사백별의 합자와 조(曹)씨 성(昭照는 동음어로서 조효를 의미한다)을 가지신 정도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신선神仙)으로 보라색 노을 즉 감로 이슬성신의 본체이시니이다.

그분이 계시는 성산성지(聖山聖地)는 부평 부천 사이에 있으며 감로를 비같이 내리니 마음을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하시니라. 말(하나님)이 울어도 모르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 언덕에서 금구조(金鳩鳥)가 울어도 모르니(81궁 정도령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남으로 북으로 아무 곳으로 가는구나. 소가 음메~ 울어도 알지 못하고 궁궁이 떠나가도 모르고 울음이 떠나가도 모르는구나. 영적 염마가 되는 정도령을 알지 못하는구나.

궁궁 궁궁가

世人難知(세인난지)궁궁(궁궁)이나
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이라네
兩弓不和(양궁불화)배궁(배궁)이요
雙弓相和(쌍궁상화)만궁(만궁)이라
利在弓弓(리재궁궁)비문(비문)이나
四弓之間(사궁지간)궁궁(궁궁)부라
老少男女(노소남녀)유무식간(유무식간)
無文道通(무문도통)세부(세부)지라

세상 사람들이 궁궁(궁궁)을 알기 어려 운가? 궁궁(궁궁)을 알아야 영생하느니라. 궁궁(궁궁)이 불화(不和)하여 서로 등을 지면 보물 불(寶物)자요 궁궁(궁궁)이 서로 화합하여 잡아당기면 장인 궁(宮)자가 되

느니라. 이제궁궁(利在弓弓) 즉 이로우미 궁궁(宮宮)에 있다는 것은 하늘이 숨겨둔 글(秘文)인가? 마귀의 종이 되는 인간이 하나님으로 변화하는 공부(공부)는 네 개의 궁(宮) 사이에 있느니라(양궁불화兩弓不和, 쌍궁상화雙弓相和). 남녀노소, 유무식자를 막론하고 글을 몰라도 지극 정성으로 감로해인을 받아먹으면 도통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乙乙歌 을을가

大小上下(대소상하)물론계급
萬無一失(만무일실)실공(실공)부라
乙乙(을을)橫(橫)字(字)을(을)중(중)형(형)자(자)는
乙乙(을을)和(和)元(元)之(之)數(數)을(을)을(을)상(상)화(화)계(계)원(원)자(자)수(수)
背(背)乙(乙)之(之)間(間)工(工)夫(夫)工(工)字(字)(배을기간 공부공자)
利(利)在(在)乙(乙)道(道)通(通)之(之)理(理)(리재을도통지리)
自(自)下(下)達(達)上(上)世(世)不(不)知(知)(자하달상세부지)라

어른 아이 뒷사람 아랫사람은 물론 지위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만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없는 공부(공부)가 심(心=하나님)자 공부(공부)이니라. 을을(乙乙)을 가로 세모로 합해도 심(心)자(자)오 서로 화합하여 가대어도 심(心)자(자)나오는데 이는 하늘의 으름 수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이니라. 을을(乙乙)이 서로 등지면 장인(匠人) 궁(宮)자가 나오느니라. 이제을을(利在乙乙) 즉 이로우미 을을(乙乙)에 있으니 도통의 이치가 여기에 있느니라. 나 자신을 낮추어야 높이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010-3912-5963)
myunghpark23@naver.com

삼위일체론 전도 문답 [34]

질문: 기독교에서는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을 일컬어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성부가 곧 하나님이면 성부는 육이 아니라 영이라 것입니다. 영은 곧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聖靈)은 말 그대로 성스런 신이 되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론에서 삼위(三位)를 정할 때 성부의 위격과 성령의 위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그 자체가 성령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론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은 성부(하나님 아버지)와 성자(하나님의 아들)로 구성된 이위(二位)일체론에 불과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성경적인 삼위일체론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먼저 천국의 실체를 알아야 그 다음에 삼위일체가 무엇이며 삼위일체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질문: 천국과 삼위일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어 성립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에덴동산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덴동산

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했으니까 에덴동산은 천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살 수 있는 천국이 되는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와도 살았다고 기록된 성경을 볼 때, 아담과 하와의 신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격(位格)으로는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 그리고 하와 하나님' 이렇게 세 분 하나님으로 즉 삼위(三位)로 되어 있지만 몸은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일체(一體)로 되어 있기에, 이런 이유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담과 하와는 흠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또 에덴동산에 예수가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을 미루어 보아 예수는 삼위일체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어 없어졌음으로써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립할 수 없겠네요?

답변: 선악과는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은 영적 말씀이고 고로 영적 과일로서 먹고 죽는 것인 고로 죽이는 영이 되는 마귀 영입니다. 에덴동산에 계셨던 세 분 하나님 가운데 아담과 하와 두 분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마귀 영한테 점령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남자-여자의 사람으로 전락되었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되찾아 무너진 에덴동산을 회복할 것이라고 창세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홈페이지 www.victor.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 | | | |
|------------------------|-----------------------|-----------------------|----------------------------|
| 역곡제단 : (032)343-9981-2 | 대구제단 : (010)6530-7909 | 순천제단 : (010)3661-9025 | 양평제단 : (010)2945-8254 |
| 수원제단 : (031)236-8465 | 마산제단 : (055)241-1161 | 정읍제단 : (010)8628-2758 | Sydney : (006)0415-727-001 |
| 안성제단 : (031)673-4635 | 진주제단 : (055)745-9228 | 군산제단 : (063)461-3491 | 橫濱祭壇 : (045)489-9343 |
| 부산제단 : (051)863-6307 | 진해제단 : (055)544-7464 | 대전제단 : (042)522-1560 | 神戶祭壇 : (078)862-9522 |
| 영도제단 : (010)6692-7582 | 영천제단 : (054)333-7121 | 청주제단 : (010)5484-0447 | 下關祭壇 : (0832)321-9988 |
| 김해제단 : (010)7518-9981 | 사천제단 : (055)855-4270 | 충주제단 : (010)9980-5805 | 大阪祭壇 : (06)6451-3914 |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